



우리협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세계물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이하 IWA)가 주최하는 '제5회 세계 물 회의 및 전시회(IWA World Water Congress & Exhibition)'에 한국의 물 환경기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협회 회원사 및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관(Korea Pavilion)을 구성, 참가하였다. 본 행사는 전 세계 물 관련 대표기업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Exhibition)와 자국을 대표하는 물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세미나(Conference)가 열리는 국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관 참여 기관은 물론 설치·운영 등을 총괄하는 협회 입장에서는 큰 부담 이상만큼이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2006 세계물협회(IWA) 북경전시회 참가



불가능은 없다!

참가 신청 후 전시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10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불가능한 부스 설치, 한국관 참여 기관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

해관계 등, 어느 하나 한국관을 준비하는 협회에게 유리하거나 호혜적인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참가신청은 완료됐고, 이제 남은 것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실수 없는 준비와 철저한 확인뿐. 한국관 참여기관 담당자들과의 미팅과 협의, 그리고 치밀한 점검을 통해 준비하다보니 어느덧 출국일이 다가왔다. 북경까지 2시간가량의 비행시간 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짓눌렸지만, 공항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가는 길목 곳곳에 행사를 알리는 배너를 보고 있자니 가슴속 한구석부터 뜨거운 오기 같은 것이 솟아올랐다.

우수한 한국의 수환경문화와 기술을 알리다

10일 오후 늦게서야 행사 개막식이 종료되자마자, 그 현장에 바로 한국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공식적인 전시회 오픈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시간 남짓. 현장에서는 쉴 틈 없이 부스 설치공사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11일 오전 8시, 전시회 오픈과 함께 한국관은 각국에서 온 참관객들에게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다.

한정된 시간 내 한국관 설치에 회의적이었던 IWA 전시담당자도 타 국가관에 비해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부스 디자인 및 구성 등이 단연 돋보인다면서 엄지손가락을 한껏 치켜세웠다. 한국관 참여기관들도 촉박한 시간 내 약속대로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4개 기관과의 원활한 의견 조율 등 협회의 운영능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각국의 참관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홍보관 외벽을 통일된 형태의 홍보메시지와 이미지 노출로 한국의 물 문화, 기술 등의 우수성을 잘 표현했다며 칭찬하였다. 또 세미나 참가를 위해 한국에서 온 대학교수님들은 그간 국가 및 참가규모에 비해 한국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이번엔 번듯하게 한국관이 설치·운영되어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며 흡족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관 참여기관들의 참여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 서울특별시는 부스 내·외벽 전면에 아름다운 청

계천 사진과 대형 청계천 약도를 게재해 '청계천 사업'을 홍보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12년을 목표로 'IWA 행사' 개최를 위해 환경국장님까지 부스에 상주하면서 시 홍보 및 행사 유치에 열을 올렸다. 또한 해수담수화 분야의 No. 1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아랍 지역 내 운영 혹은 건설 중인 자사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을 소개하고, 서울대학교는 유용한 수자원으로서 빗물활용에 관한 '빗물 모으기 연구'를 판넬 형태로 전시하였다.



한편 협회에서는 WATER KOREA 및 협회 홍보를 위해 한국관 내 브로슈어를 배치하고 타 국가관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였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 차원에서 AWWARF(미국수도협회 연구재단)의 Rober Renner 총재를 비롯, IWA관계자 미팅 등을 통해 상호 기관간의 신뢰를 다졌다.

회원과 함께하는 한국대표 상하수도 전문기관으로 도약

IWA 북경전시회는 협회의 첫 국가관 참여라는 의미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많은 위협이나 도전들로 인해 그 어느 행사보다 쉽지 않았었다. 그러나 어려움 만큼이나 참여기관이나 협회에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남겼다.

특히 효과적인 해외홍보나 국제교류의 방법을 찾는 회원사들의 요구에 이번 북경전시회의 한국관 구성은 그 갈망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수단이 되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사업자나 해수담수화의 세계적인 기업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국의 대표 브레인인 서울대학교 등을 한국관이라는 한 울타리에 묶어 각각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협회가 대외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처럼 한국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신 참여기관분들은 물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협회 정명수 과장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우리협회는 NSF와 번역 및 출판물의 판권에 대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상하수도분야의 우수한 인증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교류의 물꼬를 텃다. 위생, 보건 및 상하수도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한 NSF의 규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면서, 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회원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자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美 NSF와의 파트너십 체제 협의



NSF International

NSF International(이하 NSF)은 1944년 미국 미시건 주 앤아버(Ann Arbor) 시에 처음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공중보건 및 위생과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제정, 제품의 인증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단체다. NSF는 앤아버 시에 위치해 있는 본부를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 8개의 지부 및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 50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2006년 현재 88개국, 5,000여 개 회사, 150,000여 제품에 대한 인증을 수여하였으며, 매년 약 27,000회의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NSF 기술기준은 미국의 국가표준(ANS)으로 공인되어 있으며, 수도분야와 관련하여 미국 대부분의 주(州) 수도사업자는 주 정부법(State Regulation) 등을 통해 NSF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적 강제성 없는 임의의 규격이지만 강제규격보다 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EPA의 Drinking Water Criteria, 일본 후생성의 용출성능기준, 우리나라 수도법의 위생안전기준 등은 모두 해당 NSF 규격을 참고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회의 개최배경

2005년 12월, 처음 번역본에 대한 판권협의를 위해 Water Program의 책임자인 Robert Ferguson 부회장과 그의 이메일 연락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의 이메일 및 서신교환을 통해 우리협회에 대한 소개는 물론, 특히 제품 인증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 기관간의 업무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NSF측에서는 지난 8월, 우리협회에 상호업무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지난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협회 이영철 개발팀장과 안성환 사원이 NSF 본부를 방문, 1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이번 출장기간 동안에는 양 기관간의 업무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뿐만 아니라 NSF인증 교육 프로그램 참석과 NSF에서 운영 중인 제품 시험소 방문이 포함되었다. 먼저 회의에는 NSF의 대표(C.E.O)인 Kevan P. Lawlor 씨를 비롯해, Robert Ferguson 부회장, Thomas J. Bruursema 음용수·하수처리 유닛프로그램 책임자, Dave Purkiss 수처리·배관시스템 책임자 등의 상하수도 관련 NSF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우리협회에 대한 소개와 NSF 소개, NSF 규격 및 관련자료 등의 번역물에 대한 판권협의를 포함하여 기타 다양한 업무협력방안에 대한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날 회의를 통해 우리협회는 한국의 상하수도분야 대표기관으로서 협회를 NSF측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NSF측은 해외의 인증시장,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NSF 규격 및 관련 자료의 번역 판권에 관한 사항은 NSF측에서 이전에 타 기관과의 번역판권 관련 협약서를 참고하여 협회측에 제시하면 논의를 통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NSF측은 향후 우리협회가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소를 운영하게 될 경우, 상호협약을 통해 NSF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협회의 시험소 설립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NSF는 내년부터 WATER KOREA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상하수도 관련 전시회 등에서 우리협회와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 홍보할 것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NSF의 대표인 Kevan P. Lawlor씨가 직접 참석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등 우리협회와 한국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 참석은 상하수도분야 제품인증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NSF와의 업무교류를 시작으로 우리협회의 위상을 미국시장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우리협회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